

아동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 연구 동향*

Research Trends on Parental Control in Childhood

1차원고접수: 2023.04.07. 수정원고접수: 2023.05.31. 최종게재결정: 2023.06.19.

권오연¹ · 임정하²

¹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²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Kwon, Ohyeon¹

Lim, JungHa²

¹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²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92편을 분석하였다. 부모 통제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를 포함하였다. 논문 발표 시기, 방법론적 경향, 내용론적 경향(개인적 특성, 발달 맥락적 특성)으로 구분해 분류하고 체계화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부모 통제 연구는 심리적 통제를 다룬 연구, 아동중기 또는 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방법론적 경향을 살펴보면,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부모 통제가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자료분석방법은 상관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이 많이 활용되었다. 셋째, 내용적 경향을 살펴보면, 아동과 부모의 개인적 특성 중 사회정서적 요인이 부모의 통제와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아동의 발달적 맥락 특성 중 또래나 미디어 특성은 아동중기 이후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에서만 다루어졌다. 부모의 발달적 맥락 특성 중 부모-자녀 특성은 부모 통제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통제 연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추후 부모 통제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유아, 아동,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행동적 통제, 동향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research trends on parental control targeting the parents of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Ninety-two articles on psychological control or behavioral control were selected among South Korean journal publications. Article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including publication year, methodologies, and contents. Major findings indicate that most studies focused on psychological control rather than behavioral control, and targeted the parents who have children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Most of the studies targeted the general participants. Parental control was the most studi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most used as data analysis methods. Parental control was studied most frequently in relation to the socio-emotional factors of children and parents and was studied with peer and media factors and parent-child factors in a developmental context.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s in a parental control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preschool childre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arental behavioral control, research tren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일생동안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간다. 그중에서도 출생한 직후에 맺는 일차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발달 연령상 유아와 초등학

생들은 부모에게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부모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와 동시에 유아와 아동들은 부모 이외의 다양한 관계들도 조금씩 넓혀나가기 시작한다. 아동초기인 유아는 또래, 교사와의 관계를 처음 형성하기 시작하고, 아동중기이후로는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교, 또래 집단의 비중이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된다(정옥분, 2015). 하지만 여전히 부모는 아동에게 있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임정하 (Lim, JungHa)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jhlim@korea.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어 물리적, 정서적으로 가장 밀접한 미시 환경이라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진행되어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 양육행동은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미 꾸준히 확인되었다(Van Der Kaap-Deeper, Vansteenkiste, Soenens, & Mabbe, 2017).

근래의 부모 양육행동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자율-지지’ 차원과 ‘통제’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한다(Soenens, Vansteenkiste, & Sierens, 2009). 그중에서도 통제 차원 양육행동은 매우 오랜 시간 연구되어왔으며, 학자들은 부모 통제를 양육행동의 중심 영역 중 하나로 여겼다(Maccoby & Martin, 1983). 또한, 부모의 통제는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된 양육행동 요인 중 하나로 밝혀져(Schaefer, 1965), 부모 통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이로 인해 수많은 연구들에서 부모 통제의 특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개념화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Grolnick & Pomerantz, 2009). 그 결과, 부모 통제는 두 가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구분되며, 자율-지지 차원의 양육행동과 달리 구체적인 통제적 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부모 통제는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나뉘어진다.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란 부모가 부모-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자녀의 관점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효화하고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제한하여 조종하고자 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Barber, 1996). 부모가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것은 자녀의 감정과 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을 조종하고 방해하는 행동이며, 자녀로부터 죄책감과 불안을 유도하고, 자녀의 언어표현 제약하기, 애정 철회하기, 자녀의 관점 무효화하기와 같은 전략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Barber & Harmon, 2002). 이와 달리, 행동적 통제(behavioral control)란 자녀가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규율을 설정하고 자녀의 행동을 감독함으로써 아동의 행동을 조절하고 구조화하려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Dishion & McMahon, 1998; Stattin & Kerr, 2000).

부모가 자녀에게 행동적 통제하는 것은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기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촉진해준다(Maccoby & Martin, 1983). 즉,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행동을 조절, 감독, 관리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적인 행동 조절의 기본 구성요소는 부모 감독이다(Patterson, Reid, & Dishion, 1992). 부모 감독(monitoring)이란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Fletcher, Darling, & Steinberg, 1995). 이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점검하고,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안혜원, 이재연, 2009).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감독하고 행동적 통제하는 것은 모두 자녀가 부모나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자녀를 사회화하고자 하는 공통된 부모의 동기에서 비롯된다(Steinberg, 1990). 즉, 행동적 통제와 감독 모두 부모의 주된 초점이 자녀의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자녀의 행동에 맞추어진다. 따라서 부모 감독은 아동의 행동을 규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행동 전략이며, 행동적 통제와 같은 목표를 가지는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다(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실제로 연구자들은 부모의 행동적 통제와 감독을 혼용했으며, 부모의 행동적 통제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 감독 척도를 사용하여 행동적 통제의 수준을 측정한 연구들(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이수현, 이강이, 2017)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감독 연구를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로 포함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차이가 있다.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계속 의존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자기 지향성의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입증되어왔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할수록 아동은 사회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연정, 이지연, 2013; 권기옥, 박성옥, 2014). 또한,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더 낮고, 이로 인해 자기조절능력도 잘 발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애, 박응임, 2020). 이와 달리, 행동적 통제는 자녀에게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한다(Steinberg, 1990).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조절 능력이나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행동적 통제를 할수록 자녀는 자기조절을 잘하게 되고 자녀의 성취동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현, 이강이, 2017; 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행동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할수록 자녀는 학업성취가 높고 행복감도 높았다(김충일, 권운정, 2018).

이처럼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모두 통제적 양육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녀에게도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발표된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선행연구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부모의 통제를 다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지지 양육행동의 경우,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면,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 어떤 통제를 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양육행동보다도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 각각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심 영역 중 하나인 통제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에서 발표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연구 개관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통제적 양육행동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심리적 통제에 관한 연구 단 2편이었다.

통제적 양육행동 중 심리적 통제에 대해서는 동향분석(백연수, 2019)과 메타분석(방희성, 이영애, 2018)이 발표되었다. 백연수의 연구(2019)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방희성과 이영애의 연구(2018)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령기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만 다루었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는 특정 학년대 자녀의 부모에 초점을 맞추거나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의 자녀들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미취학 유아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분석한 동향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의 동향을 함께 살펴본 경우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미취학 유아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 부모 통제 연구들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부모 통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의 발표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의 내용론적 경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

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를 다룬 국내 학술지 논문 총 92편이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들은 국내 학술지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21년 9월 20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1차, 2022년 3월 3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2차, 2022년 7월 12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차,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4차로 수집되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명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중기, 후기를 나타내는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으며, 총 1,198편이 확인되었다. 검색된 결과에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19편), 중복된 논문(259편), 연구대상이 다른 논문(465편), 주제가 다른 논문들(363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논문은 20편, 행동적 통제 논문은 8편이 최종적으로 선별되었다. 또한, 아동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논문은 47편, 행동적 통제 논문은 3편, 감독 논문은 14편이 최종적으로 선별되었으며, 부모 감독 논문은 행동적 통제 논문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2. 분석 절차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를 다룬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총 2인의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생이 분석에 참여하였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의 예비 단계로서, 분석 기준안을 제작하여 아동학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선정된 기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기준안을 바탕으로 분석자 훈련을 마친 후, 전체 자료의 약 20%에 해당하는 20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동료 분석자들이 독립적으로 평정하였다.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석 기준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자 간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일치율은 98.9%로 나타났다. 불일치 항목이나 세부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3. 분석 기준

1) 연구발표 분석기준

연구의 발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이 발표된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논문이 발표된 시기와 관련하여 각 연도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분석기준

연구방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 연구유형, 측정 방법, 연구설계 및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의 연령대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의 연령대는 자녀의 경우,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연령을 구체화하여 만 3-5세인 아동 초기, 만 6-8세인 아동 중기, 만 9-11세인 아동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부모의 경우,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보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대상의 특성은 일반 집단과 특정 집단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유형과 관련하여 연구접근방법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접근방법은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의 경우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문헌연구, 2차 자료를 포함하여 총 6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측정도구와 응답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측정도구의 경우,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 방식으로는 아동들이 스스로 해당 양육행동을 지각하는 정도를 응답하는 아동 보고식으로 응답하였는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본인의 양육행동 수준을 응답하는 부모 보고식으로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설계 및 분석과 관련하여 연구설계, 자료분석방법, 통제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설계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변인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중 어떤 변인으로 설계되어 분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자료분석방법의 경우 상관분석, t 검증, 변량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잠재성장모형, 요인분석, 기타를 포함하여 총 8개의 항목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통제 변인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변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어떤 변인들이 통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3) 연구내용 분석기준

연구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와 함께 다루어진 변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함께 다루어진 변인들의 특성은 크게 개인적 특성과 발달적 맥락 특성으로 나누었다. 개인적 특성은 아동과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인구학적 특성과 발달영역별 특성으로 나누었으며, 그중에서도 발달영역별 특성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발달적 맥락 특성은 아동과 부모의 주변 맥락에 해당하는 특성들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의 발표현황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들을 발표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는

모두 2000년대 초반까지 간혹 1편 정도의 연구만 발표될 정도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라는 제목으로 통제 차원을 구분하여 심리적 통제에 대해 살펴본 초기 연구는 정윤주의 연구(2004)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교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행동적 통제의 초기 연구는 천희영, 옥경희, 김미해의 연구(2001)로, 부모의 감독 수준에 따른 초등학교 자녀의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 수준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는 2009년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부터 꾸준히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발표 편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대략 매년 5-6편 정도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는 2011년까지 간혹 1편 정도의 연구만 발표되다가 2012년 이후부터 발표 편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매년 2-3편 정도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발달단계와 부모의 통제 유형에 따라 발표된 연구 편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64편)가 아동 초기인 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28편)보다 더 많이 발표되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다룬 연구(67편)가 행동적 통제를 다룬 연구들(25편)보다 더 많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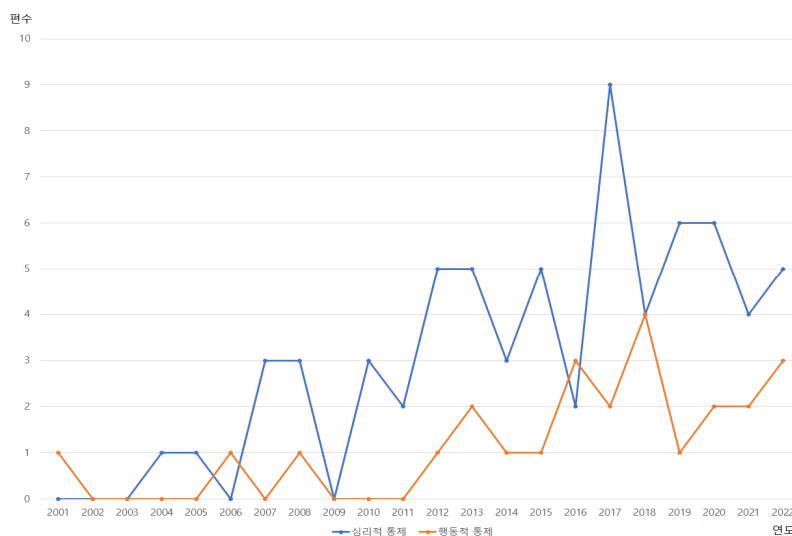


그림 1.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연도별 발표 편수 (N = 92)

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 연구유형, 측정 방법, 연구설계 및 분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연구대상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의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초기인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은 모두 만 3-5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들이 골고루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만 5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가장 많았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들은 만 9-11세 아동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심리적 통제 연구의 경우 특히 만 10-11세 아동 자녀를 둔 부모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부모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서는 30대 중후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가 5편 있었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는 52편이었는데, 6편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대를 보고하지 않았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대를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40대 초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의 연구대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 집단을 표집하였다(표 1 참조). 중기이후 아동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서는 영재 아동 자녀-부모 집단을 함께 표집한 연구 1편(김상희, 한기순, 2017)과 한부모 가구 집단을 표집한 연구 1편(허수연, 2018)도 찾아볼 수 있었다.

2) 연구유형

(1) 연구접근방법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의 연구접근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92편의 연구들 중 대부분이 횡단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 1편과 행동적 통제 연구 4편에서만 종단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즉, 소수의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들에서만 시간의 간격을 두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의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았다.

(2) 자료수집방법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의 자료수집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

표 1.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연구대상 특성 현황

연구대상 특성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일반 집단	20	47	8	16
특정 집단	0	1	0	1

주.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응답함.

표 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연구접근방법 현황

(N = 92)

연구접근방법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횡단적 접근법	20	46	8	13
종단적 접근법	0	1	0	4

다. 전체 92편의 부모 통제 연구들은 모두 질문지법이나 2차 자료를 통해서만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들에서는 2편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질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 중 아동초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7편으로 더 많았지만, 아동중기이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가 13편으로 더 많았다.

3) 측정 방법

(1) 측정도구

① 심리적 통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들의 측정도구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된 척도는 Barber (1996)가 개발한 PCS-YSR(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이었으며, 총 52편의 연구(77.61%)

에서 해당 척도를 번안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CS-YSR 척도는 아동이 스스로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에 대해 응답하는 척도이다. 이에, PCS-YSR 척도를 사용한 16편(23.88%)의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본인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본인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응답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PCS-YSR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한 경우가 26편(38.81%),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는 10편(14.93%)으로 나타났다.

② 행동적 통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들의 측정도구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의 행동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 6편(24%)에서는 Slater와 Power(1987)의 PDI(The Parenting Dimension Inventory)를 Judith와 Christopher(2002)가 사용한 것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

표 3.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자료수집방법 현황

(N = 92)

자료수집방법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관찰법	0	0	0	0
질문지법	19	46	7	4
면접법	0	0	0	0
실험법	0	0	0	0
문헌연구	0	0	0	0
2차 자료	1	1	1	13

표 4.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심리적 통제 연구의 측정도구 현황

측정도구	심리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CRPBI (Children's Report of Parent's Behavior Inventory) (Schaefer, 1965)	0	0
PCS-YSR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Barber, 1996)	16	36
CPPCS (The Chinese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cale), CMPCS (The Chinese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cale) (Shek, 2006)	0	6
DAPCS (The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Scale) (Soenens, Vansteenkiste, & Luyten, 2010)	0	2
유아기 부모를 위한 심리적 통제 양육척도 (김충일, 장유진, 이강이, 2015)	3	0
2차 자료 (패널 데이터) 문항	PCS-YSR (Barber, 1996)	1
	부모 양육행동 척도 (허묘연, 2004)의 일부 문항	0
기타	0	2

하였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의 12편(48%)은 부모 감독 문항과 통제적 양육 행동 문항의 일부를 추출하여 기수집되어있는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응답 방식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의 응답 방식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6 참조). 아동초기인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은 모두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인의 통제 수준을 보고하는 부모 보고식 형태로 평가되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와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통제 수준에 대해 보고하는 아동 보고식 형태로 평가되었다.

4) 연구설계 및 분석

(1) 연구설계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가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중 어떤 변인으로 설계되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자녀의 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2) 자료분석방법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의 자료분석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료분석방법은 상관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t 검증 등의 순서로 자주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행동적 통제 연구의 측정도구 현황

측정도구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PDI (Slater & Power, 1987)		6	0
2차 자료 (패널 데이터) 문항	Parental Behavior Control Scale (Shek, 2005)	1	0
	부모의 통제적 ·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 (조복희, 이진숙, 이흥숙, 권희경, 1999)의 일부 문항	0	1
	부모 양육행동 척도 (허묘연, 2004)의 일부 문항	0	11
	Home Observation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Caldwell & Bradley, 2003)의 일부 문항	0	3
기타		1	5

표 6.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응답 방식 현황

응답 방식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 보고식		0	46	0	11
부모 보고식	아버지	4	0	3	2
	어머니	20	1	8	6

주.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응답함.

표 7.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연구설계 현황

연구설계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독립변인	15	42	5	14
종속변인	3	2	1	0
매개변인	2	3	2	1
조절변인	0	1	0	2

주.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응답함.

아동초기와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 중 77편(36.67%)에서 상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모의 통제와 부모 및 자녀의 특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회귀분석(59편, 28.10%)과 구조방정식 모형(29편, 13.81%)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모의 요인이 통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는 연구도 자주 수행되는 편이었다. 더불어, 23편(10.95%)의 연구들에서는 t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부모의 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 통제 변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통제 유형에 따라 통제하는 변인에 차이가 있었다.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 교육수준, 성별 순으로 통제하여 살펴본 반면,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가구 소득, 연령과 부모 교육수준 순으로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의 경우,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을 설정하여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가구 소득, 연령, 부모 교육수준 순으로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3.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의 내용적 경향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내용적 경향을 확인하고자 아동과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발달적 맥락 특성을 살펴보았다. 개인적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과 발달영역별 특성(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맥락 특성은 아동의 경우 가족, 교사, 또래, 미디어, 기타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부모의 경우 부모-자녀, 부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개인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자주 살펴보는 편이었으며, 총 20편(68.97%)의 연구가 해당되었다.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년에 따른 부모 행동적 통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는 편이었으며, 총 5편(71.43%)의 연구가 해당되었다.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자주 살펴보는 편이었으며, 총 16편(76.19%)의 연구가 해당되었다.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을 함께 다룬

표 8.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자료분석방법 현황

자료분석방법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상관분석	16	41	8	12
t 검증	3	16	1	3
변량분석	2	5	0	2
회귀분석	15	30	5	9
구조방정식 모형	5	16	3	5
잠재성장모형	0	0	0	3
요인분석	1	7	0	1
기타	0	0	0	1

주.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응답함.

연구가 없었다.

(2) 발달영역별 특성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 부모의 통제와 함께 다루어진 아동과 부모의 발달영역별 특성 변인을 살펴보았으며, 발달영역별 특성은 신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 중 아동의 발달영역별 특성을 다룬 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첫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 중 아동기 자녀의 신체적 요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단 1편이었다. 해당 연구(장유진, 김충일, 2019)는 아동초기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통제 연

표 9.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에서 다루어진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현황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성별	4	16	0	1
연령(학년)	1	7	1	4
돌봄 이용 여부	0	0	0	1
학교 성적	0	1	0	0

주.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응답함.

표 10.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에서 다루어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현황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성별	1	15	0	0
연령, 교육수준, 소득	5	0	0	0

주.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응답함.

표 11.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에서 다루어진 아동의 발달영역별 특성 변인 현황

아동의 발달영역별 특성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신체적 영역	공 던지기	공 던지기 단계 선택 및 수행 점수	1	0	0	0
인지적 영역	기본인지	완벽주의, 도덕적 이탈, 스트레스 대처행동	0	6	0	2
	사회인지	귀인양식, 공감	1	2	0	3
	학습인지	성취가치,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결정성 동기, 학업통제능력, 학업수행능력	0	5	0	3
사회 정서적 영역	애착	애착	1	0	0	3
	기질	기질	1	0	0	1
	자아특성	자아개념,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0	8	0	1
	조절능력	자기위로능력, 자기통제, 자기조절능력, 만족지연능력	7	2	2	2
	문제 내재화 문제	우울, 불안, 위축 등	7	19	3	2
	행동 외현화 문제	공격성, 비행, 과잉행동 등	6	9	5	7
	정서조절/표현	정서조절능력, 정서표현 양가성	3	8	1	1
	사회관계적 특성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친사회적 행동, 인정욕구, 또래관계기술, 거부민감성	1	18	1	0
	적응력	학교적응, 기본심리욕구, 삶의 만족도, 행복	0	9	0	5
	놀이	놀이성	1	0	1	0
	성격특성	내외향적 성격특성	0	1	0	0

주.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응답함.

구였다. 장유진과 김충일의 연구(2019)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공 던지기 단계 선택 및 수행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 중 아동기 자녀의 인지적 요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총 21편이었다. 그중 20편(95.24%)이 아동중기이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심리적 통제를 다룬 연구에서는 인지적 영역 중 기본인지 요인(6편, 46.15%)이 가장 자주 다루어졌고, 그중 4편은 아동의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루었다.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인지적 영역 중 사회인지(3편, 37.5%)와 학습인지(3편, 37.5%) 요인이 가장 자주 다루어졌다.

셋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 중 아동기 자녀의 사회정서적 요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총 160편으로, 자녀의 발달영역별 특성 중 사회정서적 요인이 부모 통제와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요인이었다.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7편, 25.93%)와 조절능력(7편, 25.93%)이 가장 자주 함께 다루어졌으며,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19편, 25.68%), 사회관계적 특성(18편, 24.32%) 순으로 자주 함께 다루어졌다.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5편, 38.46%), 내현화 문제(3편, 23.08%) 순으로 자주 함께 다루어졌으며,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7편, 31.82%), 적응력(5편, 22.73%) 순으로 자주 함께 다루어졌다.

다음으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 중 부모의 발달영역별 특성을 함께 다룬 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첫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 중 부모의 신체적 요인을 다룬 연구는 없었다. 둘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 중 부모의 인지적 요인을 다룬 연구는 총 5편이었다. 부모의 인지적 요인은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 더 다루는 편이었다. 셋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 중 부모의 사회정서적 요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총 22편으로, 부모의 발달영역별 특성 중 사회정서적 요인이 부모 통제와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요인이었다. 부모 개인의 내재화 문제는 아동초기(7편, 38.46%)와 아동중기이후(2편, 33.33%)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사회정서적 요인이었다.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특성(2편, 33.33%)과 정서표현/정서평가(2편, 33.33%) 요인이 가장 자주 다루어졌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 중 부모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함께 다룬 연구는 없었다.

2) 발달적 맥락 특성

먼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아동의 발달적 맥락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첫째, 가족 요인은 부모의 통제와 함께 자주 연구되지는 않았으며,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 1편에서만

표 1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에서 다루어진 부모의 발달영역별 특성 변인 현황

부모의 발달영역별 특성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신체적 특성			0	0	0	0
인지적 특성	기본인지	완벽주의	1	0	0	0
	사회인지	부모역량, 자녀의 또래인식, 공감 등	2	1	0	1
사회 정서적 특성	애착	성인애착	2	1	0	0
	자아특성	자기분화, 자아유능감, 자아존중감 등	2	1	1	0
	양육특성	양육불안,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3	1	2	0
	내재화 문제	우울, 불안, 등	5	2	1	0
	정서표현/정서평가	정서 재평가, 정서표현성	1	1	2	0

주.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응답함.

가족건강성을 함께 다루었다. 둘째, 교사 요인도 부모의 통제와 함께 잘 연구되지 않는 편이었으며, 단 3편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만 함께 다루어졌다. 셋째, 또래 요인은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서만 함께 다루어졌으며, 행동적 통제 연구(4편)보다 심리적 통제 연구(10편)에서 다루어지는 편이었다. 넷째, 미디어 요인도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서만 함께 다루어졌으며, 심리적 통제 연구(3편)보다는 행동적 통제 연구(5편)에서 다루어지는 편이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부모의 발달적 맥락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첫째, 부모-자녀 요인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발달적 맥락 특성 변인 중 가장 자주 연구되는 요인이었다. 아동초기 자녀와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들 간의 영

향력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자주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의 대부분이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를 함께 다루며 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둘째, 부부 관련 요인 중 부부 간 갈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만 함께 다루어졌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의 동향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발표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통제는 2000년대까지는 잘 연구되지 않다가 201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표 13.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에서 다루어진 아동의 발달적 맥락 특성 변인 현황

아동의 발달적 맥락 특성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가족	건강성	가족 건강성	0	1	0	0
	훈육	교사의 훈육	1	0	0	0
교사	심리적 통제	교사의 심리적 통제	0	1	0	0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	1	0	0	0
또래	우정	우정의 특성	0	1	0	0
	또래 관계	또래관계, 또래관계의 질	0	3	0	3
	또래 지지/수용	친한 친구지지, 또래 수용	0	1	0	0
	또래 괴롭힘	또래괴롭힘, 오프라인 괴롭힘	0	2	0	1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	0	3	0	0
	미디어 기기 중독/의존	SNS 중독경향성, 휴대폰 의존 등	0	3	0	3
미디어	스마트폰 허용여부	스마트폰 소유 허용 여부	0	0	0	1
	스마트폰 이용패턴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이용 목적	0	0	0	1
기타			1	1	0	4

주.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응답함.

표 14.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에서 다루어진 부모의 발달적 맥락 특성 변인 현황

부모의 발달적 맥락 특성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아동초기	아동중기이후
부모 - 자녀	부모 양육행동	심리통제, 행동통제, 부모지지, 과잉간섭 등	9	3	8	3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0	1	0	0
	부모의 자녀와의 시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여가활동	0	0	0	1
부부	부부 갈등	부부 간 갈등	1	1	0	0

주. 여러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응답함.

자녀의 발달단계와 부모의 통제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발표된 연구 편수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발표현황을 비교해보자면,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발표되었다. 이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동들은 아동중기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접촉대상이 점차 확대되어간다(정옥분, 2015). 이와 동시에 아동중기부터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가 점차 발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는 아동중기이후 자녀에게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umrind, 1991; Maccoby & Martin, 1983). 이에,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들이 더 활발히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통제 유형에 따라 발표현황을 비교해보자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다룬 연구가 행동적 통제를 다룬 연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발표되었다. 이는 타당한 측정도구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 심리적 통제의 경우, Barber(1996)가 오랜 시간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그에 따라 타당한 심리적 통제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측정도구를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쳐 보급되어 많은 심리적 통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와 달리, 행동적 통제의 경우 부모 감독 측정도구나 통제적 양육행동 측정도구의 일부 문항만 추출하여 사용하는 등 타당한 측정도구가 부족하여 많은 연구들이 충분히 발표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행동적 통제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관성에 따라서도 발표 편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통제는 그 정도와 상관없이 자녀의 심리적 영역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동적 통제는 심리적 통제와 다르게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자녀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적정 수준의 행동적 통제를 하게 된다면 자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 규

율을 지키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과하게 높은 수준에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다면 자녀 개인의 자율성과 유능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와 엄격한 규율은 자녀의 적응에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Nix et al., 1999). 때문에, 행동적 통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제대로 된 측정도구까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행동적 통제에 관한 연구가 심리적 통제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을 연구대상, 연구유형, 측정 방법, 연구설계 및 분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모두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횡단적 접근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상관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t 검정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으며, 부모 통제는 독립변인으로 분석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즉,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는 일반 집단 대상, 횡단적 접근법, 일부 분석방법과 설계에 치중되어있는 편이었다. 방법론적 경향 중 자료수집방법과 응답 방식은 부모 통제 유형과 자녀의 발달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료수집방법의 경우 질문지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지만,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는 주로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행동적 통제의 타당한 측정 도구가 부족해 주로 2차 자료로 연구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서는 부모 보고식 형태로,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서는 아동 보고식 형태로 부모의 통제를 측정하였다. 유아들은 질문지 답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본인의 통제 수준을 응답하도록 수정된 부모 보고식 형태로 측정한 반면,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사고하여 생각하는 바를 응답할 수 있기에 아동 보고식 형태로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통제 연구의 내용적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용적 경향은 아동과 부모의 개인

적 특성과 발달적 맥락 특성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먼저, 부모 통제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진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주로 살펴보는 편이었으나,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주로 살펴보는 편이었다. 심리적 통제 연구의 경우,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주희, 2014; 이경미, 박주희, 2016)이 있어 자녀가 남아인지 여아인지에 따라 느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행동적 통제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가 또래 및 학업의 이유로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감독하고 행동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정자, 2005).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학년에 따른 부모의 행동적 통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소 수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통제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진 부모의 개인적 특성 중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 주로 부모의 성별에 따른 부모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 차이를 자주 살펴보았다. 이전에 수행되었던 심리적 통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거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이에 따라, 이후에 발표된 심리적 통제 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별에 따라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통제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진 자녀의 개인적 특성 중 발달영역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통제와 가장 자주 연구되는 자녀의 발달영역별 특성 요인은 사회정서적 요인이었다. 함께 자주 다루어진 사회정서적 요인은 부모 통제 유형과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조절능력이 가장 자주 함께 다루어졌으며, 아동중기 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사회관계적 특성 요인이 자주 함께 다루어지는 편이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내재적인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자주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적 통제는 부정확한 정서표현, 언어적 표현 제약, 애정 철회, 죄책감 유발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이용하여 자녀의 심리를 통제하는 양육행동이기 때문에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방해한다(Barber, Stolz, Olsen, Collins, & Burchin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자녀의 내재화 문제, 조절능력 등의 요인들이 자주 함께 다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청소년의 내재적인 어려움과 특히 연관된다고 살펴본 Barber의 연구(2002)와 일관된 동향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 자녀의 내재화 문제 다음으로 사회관계적 특성 요인도 자주 함께 다루어졌는데, 이는 아동중기이후 자녀라는 발달적 특성이 반영된 동향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들은 아동초기 때에 비해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사회관계적인 특성 간의 관계를 자주 살펴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 내현화 문제 순으로 자주 함께 다루어졌으며,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 적응력 순으로 자주 함께 다루어졌다. 즉,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자주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다면 자녀가 파괴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더불어, 부모로부터 행동적으로 통제받지 않는다면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Barber et al., 2005). 이러한 영향력을 입증

하고자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와 더불어 내현화 문제도 자주 함께 다루었던 점은 유아기라는 특성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와 내현화 문제 즉, 문제행동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아기 때 해결되지 않으면 아동중기 이후와 청소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Tremblay, 2000). 때문에, 유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사전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아의 심리적, 행동적 발달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행동과 그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다소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중기 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와 더불어 적응력에 관한 연구도 자주 수행된 점은 아동중기이후 자녀라는 발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 및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정옥분, 2015), 부모의 행동적 통제와 자녀의 적응력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발달영역별 특성 중 인지적 요인은 부모의 통제와 일부 함께 다루어지는 편이었다. 자녀의 인지적 요인과 부모의 통제를 함께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기본인지 요인, 그중에서도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을 가장 자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Hamacheck(1978)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녀의 수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이 자녀의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만 조건적으로 인정해줄 때 자녀의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에, 자녀의 생각, 감정, 자기표현, 부모에 대한 애착을 간섭하고 조종하는 양육행동인 심리적 통제(Barber, 1996)가 자녀의 완벽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입증하려는 연구가 다소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와 학습인지 요인을 가장 자주 다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동적 통제의 특성과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는 양육행동이며(Steinberg, 1990), 그러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자녀의 사회적 인지 능력을 키우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중기이후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통제해주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자녀의 학습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자녀의 발달 영역별 특성 중 신체적 요인은 단 1편에서만 다루어졌으며, 이는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 1편으로만 그쳤다.

부모의 통제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진 부모의 개인적 특성 중 발달영역별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의 통제와 가장 자주 연구되는 부모의 발달영역별 특성 요인도 사회정서적 요인이었다. 아동초기와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에서는 부모 개인의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을 자주 다루는 편이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재화 문제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하게 되는 경로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아동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특성과 정서표현/정서평가 요인이 가장 자주 함께 다루어졌다. 해당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행동적 통제를 함께 다룬 연구들로, 심리적 통제 및 행동적 통제와 양육특성 혹은 정서표현/정서평가 요인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들이었다.

부모의 통제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진 자녀의 발달적 맥락 특성은 가족, 교사, 또래, 미디어,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또래 요인과 미디어 요인은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서만 함께 다루어졌다

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아동초기와 달리 아동중기이후에는 사회관계가 확장되고, 다양한 미디어도 접하기 시작한다. 이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행동적 통제가 아동중기이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서 자녀들의 또래 및 미디어 관련 요인들이 자주 다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통제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진 부모의 발달적 맥락 특성은 부모-자녀, 부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초기와 아동중기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 요인 중 양육행동이 자주 다루어졌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를 서로 비교하거나, 다른 양육행동과 부모의 통제를 함께 비교하고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들에서 함께 다루어진 내용적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기존의 부모 통제 연구들은 특정 연구대상의 특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행동적 통제와 자녀의 발달영역별 특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지만, 부모의 발달영역별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의 수는 현저히 적었다. 이는 연구대상과 부모 통제 유형별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특정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부모 통제와 특정 요인 간의 관련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동초,중,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발달결과와의 관련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부모 통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주요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행동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타당한 측정 도구가 부족하여 행동적 통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의 편수 차이가 크게 나 두 양육행동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행동적 통제의 정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적절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한다면 행동

적 통제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특정 접근법과 연구대상 등에 치중되어있으며, 부모 통제와 다른 특성들 간의 단편적 관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접근법과 연구대상 등을 보다 더 다양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통제를 다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관련성 연구를 넘어 통합적인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 동향을 살펴보았다. 통제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다루어진 통제적 양육행동 연구들의 동향도 함께 살펴본다면 통제적 양육행동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 연구의 발표현황과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적 측면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이 분야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병애, 박응임 (202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1), 41-59.
<https://doi.org/10.15284/kjhd.2020.27.1.41>
- 고연정, 이지연 (2013).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과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1(2), 3-17.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권기욱, 박성옥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우울과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7(1), 27-46.
- 김상희, 한기순 (201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 영재자녀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 인정욕구를 매개로. *영재교육연구*, 27(3), 277-297.
<https://doi.org/10.9722/JGTE.2017.27.3.277>
- 김주희 (2014).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일, 권윤정 (2018).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이 학령전기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3), 207-221. <https://doi.org/10.17643/KJCE.2018.27.3.11>
- 김충일, 장유진, 이강이 (2015). 유아기 부모를 위한 심리적 통제 양육 척도 (Psychological Controlled Parenting Scale for Childhood parent: PCPSC) 개발 연구. *아동교육*, 24(2), 23-38.
<https://doi.org/10.17286/KJCE.2015.24.2.02>
- 방희성, 이영애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령기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1(2), 191-208.
<https://doi.org/10.17641/KAPT.21.2.1>
- 백연수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동향연구: 2010년~2019년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2(2), 44-58.
- 안혜원, 이재연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0(1), 77-88.
- 이경미, 박주희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31-46.
<http://doi.org/10.5723/kjcs.2016.37.4.31>
- 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2(5), 67-84.
- 이수현, 이강이 (2017). 부모의 행동적,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성취가치 발달 궤적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2), 109-134.
- 장유진, 김충일 (2019).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불안이 공 던지기 도전 상황의 유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157-174.
<https://doi.org/10.20437/KOAECE24-5-08>
- 정옥분 (2015).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조복희, 이진숙, 이흥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전희영, 옥경희, 김미해 (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9(10), 153-168.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지*, 12(2), 170-189.
- 허수연 (2018). 한부모가족 여성의 자녀와의 시간과 자녀의 삶 만족에 관한 연구: 부모감독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9, 5-26.
<https://doi.org/10.16975/kjfs.2018..59.001>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915.x>
- Barber, B. K. (2002). Re-introducing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3-1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https://doi.org/10.1037/10422-001>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https://doi.org/10.1037/10422-002>
- Barber, B. K., Stolz, H. E., Olsen, J. A., Collins, W. A., & Burchinal, M.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47.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https://doi.org/10.1177/0272431691111004>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Administration manual*. Little Rock, AR: University of Arkansas.
- Dishion, T. J., & McMahon, R. J. (1998). Parental monitoring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rmula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 61-75. <https://doi.org/10.1023/A:1021800432380>
- Finkenauer, C., Engels, R., & Baumeister, R. (2005). Parenting behaviour and adolescent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58-69.
<https://doi.org/10.1080/01650250444000333>
- Fletcher, A. C., Darling, N., & Steinberg, L. (1995).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527906.016>
- Grolnick, W. S., & Pomerantz, E. M. (2009). Issues and challenges in studying parental control: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3(3), 165-170.
<https://doi.org/10.1111/j.1750-8606.2009.00099.x>

- Hamachec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1), 27-33.
- Judith, H. S., & Christopher, P. R. (2002).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interpersonal conditions, clinical effectiveness, and speech effectiveness within*. New York: Harbinger Publication.
- Maccoby, E. M., & Marti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John Wiley & Sons.
- Nix, R. L., Pinderhughes, E. E., Dodge, D. A., Bates, J. E., Pettit, G. S., & McFadyen-Ketchum, S. A. (1999).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hostile attribution tendenc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mothers' harsh discipline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0, 896-909. <https://doi.org/10.1111/1467-8624.00065>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Oregon: Oregon Social Learning Center.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https://doi.org/10.1111/1467-8624.00298>
-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4), 349-383. <https://doi.org/10.1177/0272431603258344>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https://doi.org/10.2307/1126465>
- Shek, D. T. (2005).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parent-child relational qualities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Sex Roles*, 53(9-10), 635-646. <https://doi.org/10.1007/s11199-005-7730-7>
- Shek, D. T. (2006). Assessment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6(4), 382-391. <https://doi.org/10.1177/1049731506286231>
- Slater, M. A., & Power, T. G. (198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in single-parent families. In J. P. Vincent (Ed.), *Advance in family interaction, assessment and theory* (Vol. 4, pp. 197-228). Greenwich, Conn: JAL.
- Soenens, B., Vansteenkiste, M., & Luyten, P. (2010). Toward a domain-specific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stinguishing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78(1), 217-256.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9.00614.x>
- Soenens, B., Vansteenkiste, M., & Sierens, E. (2009). How ar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support related? A cluster-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1), 187-202.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8.00589.x>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https://doi.org/10.1111/1467-8624.00210>
- Steinberg, L. (1990).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cross varied ecological niches. In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April 1989.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29-141. <https://doi.org/10.1080/016502500383232>
- Van der Kaap-Deeder, J., Vansteenkiste, M., Soenens, B., & Mabbe, E. (2017). Children's daily well-being: The role of mothers', teachers', and siblings' autonomy support and psychological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53(2), 237-251. <https://doi.org/10.1037/dev0000218>